

돈줄 마른 중소기업 지원군 '정책자금'

광주·전남 올 3200억 지원 전년보다 600억원 늘어

창업·경영자금 등...금리 2.3% 내년도 올해와 비슷

“시중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쉽지 않은데 금리까지 오르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뛰고 원자재도 오를건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A업체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 사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사름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운영자금 마른 등 자금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에 기대를 걸고 있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기업

예금은행 여신액은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 전월에 비해 1146억원 증가한 2217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과 신탁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액도 3436억원으로 전월 대비 8% 증가하며 기업들의 대출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면서 대출자금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역 기업들은 금리인상에 따라 내년도 사업계획 경비가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의 한 기업 재무담당자는 “매년 사

업 계획비를 10% 정도 확대했는데 내년의 경우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15~20% 이상 더 많아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금리인상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장기대출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예고돼 각 기업들의 고정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의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인건비 예상금액을 6~7% 이상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경기불황에 수입은 줄고 있는데 고정 지출이 늘어 다른 기업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 정책자금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자금의 특성상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이라 전망에서다.

정책자금은 시중금리를 따라가기 보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한 채권의 조달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올해 정책자금 기준 금리는 2.30%로 내년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오른만큼 내년도 정책자금 신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벌써부터 오는 등 정책자금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크다”며 “다만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가분과 관련 부처 협의해 이달 20일 이후 나오는 정책자금 금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배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총 32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00억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창업자금이 전년보다 600억원 더 증가한 가운데, 내년도도 일시적경영예외자금과 수출, 창업 자금 등에 집중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81.88 (-0.19)
- ↑ 금리 (국고채 3년) 2.09% (+0.01)
- ↓ 코스닥 770.50 (-1.32)
- ↓ 환율 (USD) 1088.50원 (-1.30)

내 모든 금융계좌 한 눈에

오늘부터 은행·상호금융 펀드·입출금 계좌 등 조회 서비스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9일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범금융권 차원에서 추진해 온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www.accountinfo.or.kr)를 1단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 정보다.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신탁계좌, 외화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상이다.

보험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 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뉘어 조회된다. 보장 시차·종료일과 피보험자 정보도 볼 수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

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도 추가된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계좌는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와 함께 농협, 수협, 신한,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종류 상호금융의 미사용계좌를 찾아 예금주에 돈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다음달 말까지 벌인다. /연합뉴스

한은-광주전남연구원 내일 공동 세미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양수)는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층 강당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논의한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의 사회로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해외·국내 정

부 정책 및 중소기업의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광주·전남지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실태와 과제'를 발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경호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 김세종 중소기업진흥정책센터 부이사장, 김승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 이찬연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정병선 전남도 지역경제과장 등이 토론회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동화나라 변신 광주은행 본점으로 오세요” KJ원더랜드 개관

내년 2월14일까지 무료 관람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18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1층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그리고 지역 아동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속 나라를 재현시킨 'KJ원더랜드' 개관식을 열었다.

올해로 3번째 겨울 개관을 맞은 'KJ원더랜드'는 본점 1층 KJ스퀘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타, 루돌프, 트리 등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새하얀 눈으로 덮인 기차 마을과 북극곰, 이글루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지역민과 어린이들에게 겨울왕국으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올해에는 산타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주와 바닷속으로 선물배달 가는 것을 주제로, 우주선과 잠수함을 특별히 제작해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시켰으



며, 재미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VR체험관을 만들어 더욱 풍성하게 개관했다.

KJ원더랜드는 18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평일 및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평일 유치원 등의 단체 관람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크리스마스 맞이 완구 최대 90% 세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24일까지 바비·미니언즈 등 150종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완구 브랜드 '마텔'이 '패밀리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9층 점 행사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스폰지밥과 미니언즈, 토마스와 친구들, 바비인형 등 캐릭터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완구 브랜드 마텔이 참여한다.

행사기간 바비, 미니언즈, 피셔프라이스, 옥도넛, 스폰지밥 등 총 13개 캐릭터 완구상품 150여종을 판매하며 30%에서 최대 90%까지 할인한다.

김미화 롯데백화점 광주점 유아 파트리더는 “이번 행사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권익위 민원상담 '국민콜 110'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상담이 다음달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콜 110'을 통해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거래와 일반 소비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

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권익위의 '국민콜 110'은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도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에 15명 규모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담양·해남 지하수자원관리 마무리

농어촌공사, 17개 농촌용수구역 관측공 설치 가뭄 대응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근)는 18일 담양군과 해남군 5개 지구 농어촌지역 지하수자원관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지역 지하수개발과 이용, 체계적인 보전 등을 위한 이 사업은 9억4200만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5년 확정된 전남지역 60개 농촌용수구역 조사대상 중 지난해까지 36곳을 완료, 올해 해남군 2개 지구(해삼·해현) 담양군 3개 지구(담양·담교·담수) 조사까지 마쳤다.

또 지하수 수량 및 수질관리의 장기적 인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해 17개 농촌용수구역에 관측공 21개소를 신규설치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조사가 완료된 용수구역은 수질·보전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 향후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자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농어촌지하수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정통 차이나이스 레스토랑 **홍메이**가 오픈하였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상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정통중화요리 | 가족모임 · 비즈니스모임 · 단체석완비

紅梅

홍메이

- 각종 행사를 위한 품격있는 장소 -

화순 엘리체 골프장 주방장이 직접 요리하는 품격있는 중국집!

예약문의. 062)571-5531

광주시 북구 설죽로 419(삼각동 507-5)
일곡 엘리체 프라이م APT 상가 115동 2F